

## 윤리적 책으로 구약 읽기를 위한 한 모색\*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헤렘을 중심으로

이사야(남서울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여호수아서 헤렘 내러티브

1. 여리고 정복과 파괴(수6:1-21)
2.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수6:22-25)
3. 아이 성에서의 패배(수7:2-5)
4. 아간과 그 가족의 죽음(수7:1, 6-26)
5. 두 번째 아이 성 전투와 율법 낭독(수8:1-35)

### III. 윤리적 이슈로 내러티브 읽기

1. 여리고 심판에서 예루살렘을 보다
2.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3. 개인의 윤리는 공동체의 윤리이다
4. 혐오와 배척을 넘어 포용으로
5.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

###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08>

\*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52048).

---

• ABSTRACT •

---

A Study for Reading the Old Testament as the Ethical Book:  
Focusing on Herem in the Book of Joshua

Associate Prof. Saya Lee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an ethical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focusing on Herem in the Book of Joshua. In the Old Testament, there are scattered stories that are difficult for modern people to accept. Among them, the Herem means destroying the enemy's city and annihilating its inhabitants. If so, is it ethically reasonable to exterminate all life and the inhabitants of Jericho, regardless of age or gender? Indeed, we cannot rejoice in the declaration that Israel annihilated the gentiles and destroyed the city.

The text demands to be read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besides God's judgment and salvation. It contrasts Rahab, a gentile prostitute, with Achan, an Israelite, and tells us that gentiles can be saved by being excluded from the objects of Herem, and that Israelis can also become objects of Herem. Also, through the story of Achan, it is said that individual ethics are community ethics. Above all, the text demands to be read from the perspective that life and worship cannot be separated.

**Key words:** ethics, Old Testament, herem, Jericho, Ai, gentile, human sacrifice

---

## I. 들어가는 말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 속에서 틀림없이 가장 불쾌한 캐릭터이다. 그는 질투심 많고 자만하며, 마음이 좁고, 불의하며, 부정한 지배광이다. 또한 야심을 품고, 피에 굶주린 인종말살자이다. 여성혐오증을 지니고 있으며, 동성애 혐오자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유아살해적이고, 자기 자식을 살해하고, 역병을 일으키며, 과대망상적이고 가학적이며, 변태성욕적이며, 변덕스럽게 악의적으로 약한 자를 들볶는 자이다.<sup>1)</sup>

샘 해리스(Sam Harris),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와 더불어 소위 21세기의 무신론적 목시파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이 단언은 과연 합당한가? 그는 하나님은 경쟁상대의 신과 비교될 수 없는 자신의 우월함에 사로잡혀있음<sup>2)</sup>과 도처에 산재한 성경의 괴상함을 지적한다.<sup>3)</sup>

실제로 구약성서 안에는 현대인의 인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산재한다. 예를 들어, 한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와 이 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가 모세에 의해 진영 밖으로 끌려 나와 회중에 의해 안수를 받은 후 돌에 맞아 죽은 일이 있는가 하면(레24:10-14),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십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진영 밖에서 돌아 맞아 죽기도 했다(민15:32-36). 그런가 하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문으로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신21:18-21), 노예를 인격체로 여기기

1)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Boston: HoughtonMifflin, 2006), 31. Paul Copan, *Is God a Moral Master?*, 이신열 역, 『구약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39에서 중인.

2)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37.

3) Paul Copan, *Is God a Moral Master?*, 30.

보다는 유통될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죽도록 구타하는 것을 합법화하기도 한다(출21:20-21).

그렇다면 과연 현대의 윤리적 개념으로 구약성서를 읽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쉽게도 구약성서는 덕, 이상 등과 같은 추상어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대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윤리(Ethics)라는 용어 자체가 구약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윤리적, 도덕적인 삶보다는 인간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일찍부터 학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윤리 분야 연구에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제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단념하라는 말을 통용하게 만들었다.<sup>4)</sup>

그래서인지 구약성서의 윤리는 구약학의 제 분야 중에서 가장 연구가 미흡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구약 윤리는 구약성서가 지닌 민족적, 역사적 유효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반면, 변화된 시대의 사회 윤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정당성을 지닌다.<sup>5)</sup> 이 분야의 연구는 20세기에 들어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H. Wright)를 시작으로 개척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이트 이후로 여러 구약학자들이 성서 윤리학의 한 분야로서 구약 윤리의 길을 다졌지만 아직 그 연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진 않았다. 다행히도 1995년에 편집, 출판된 『윤리 안의 성서』(*The Bible in Ethics*)<sup>6)</sup>와 2004년에 출판된 『구약성서 윤리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in Old*

4) C.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13.

5) W. C. Kaiser, *What does the Lord Require?: A Guide for Preaching Biblical Ethics* (Grand Rapids: Baker, 2009), 36-50 참조.

6) John W. Rogerson & M. Daniel Carroll, *The Bible in Ethics*, JSOTSup. 207 (London: T&T Clark, 1995).

*Testament Ethics*)<sup>7)</sup>는 20여명의 학자들에 의해 구약성서 윤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맺었고, 여러 장르에서 윤리적 쟁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의를 강조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들 가운데 설명하기 힘든 것 중 하나는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강조하면서(신7:6)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민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대량학살과 멸절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남녀노소를 막론한 주민들과 모든 생명을 멸절하는 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멸절하고’ 성읍들을 ‘진멸하고 바쳤다’(수11:21 등)는 선언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펼치는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대량 학살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성서를 읽는 독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윤리와는 상관없는,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삼하7:23), 자기 이름을 위하여(시106:8) 존재하는 비윤리적인 분인가? 특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나타나는 헤렘(수6장)은 구약의 헤렘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윤리적으로 비쳐진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남녀 노소와 가축들까지 칼날로 진멸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수6:21).<sup>8)</sup>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헤렘(herem)

7) John W. Rogerson & M. Daniel. Carroll, *Theory and Practice in Old Testament Ethics: The Contribution of John Rogerson*, JSOTSup. 405 (London: T&T Clark, 2004).

8)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 범위를 벗어나지만, 우선 여리고의 헤렘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여리고 전투 자체의 역사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역사상 최고(最古)의 도시로 꼽히는 여리고는 이미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허로 존재했다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고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Kathleen, M Kenyon, *Excavations at Jericho*, vol. 5 (London: E. Benn, 1979); Eric H. Cline, *Biblical Archaeology: A Very Short*

은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계되어 사용될 때 적들의 도시를 파괴시키고 그 거민까지 진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21:3; 신2:34; 10:28-40; 20:16-18; 수6-8장; 수10:16-11:23; 삼상15장 등).

<sup>16</sup>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sup>17</sup>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신20:16-17)

하나님을 도덕적 괴물(moral monster)<sup>9)</sup>로까지 비유한 이 헤렘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 인종을 죽인 것이 나찌나 히틀러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들을 때 우리는 이를 올바르게 정죄한다. 그러나 신적 명령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같은 일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정죄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셰르머(M. Shermer)의 비판은 어찌면 당연하게 들려온다.<sup>10)</sup> 지바이든은 하나님의 윤리성 문제를 제기하는 도킨스의 확신이 ‘헤렘 구절들에서 끌어왔다’고 말한다.<sup>11)</sup> 본 연구는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 정복 정복에 나타나는 본문(수6-8

---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William G. Dever,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2017), 184-189 참고.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81(2021), 134, 특히 각주 5번. ‘그들(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삿1:21 등)는 성서 본문 자체의 보고는 헤렘이 온전히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9) Paul Copan, “Is God a Moral Monster?,” 7-37.

10) Michael Shermer, *The Science of God and Evil* (New York: Henry Holt, 2004), 39-40; Paul Copan, *Is God a Moral Monster?*, 339.

11) David D. Jividen, “Is Yahweh a bloodthirsty, genocidal maniac?, If God is love, Why does he command the annihilation of entire people?,” *New Oxford Review* (2018, June), 38. 강규성, “‘헤렘’ 전쟁 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 장)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9(2019), 2에서 재인용.

장)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의식에서 시작한 구약성서의 헤렘에 대한 한(a) 윤리적 읽기의 시도이다.

## II. 여호수아서 헤렘 내러티브

### 1. 여리고 정복과 파괴(수6:1-21)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다. 이스라엘의 여리고 점령 방법은 특이하다. 백성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칠일째에 성을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졌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이 무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한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시는 무장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수10:42). 문제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의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했다.

<sup>20</sup>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sup>21</sup>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마치고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수6:20-21)

### 2.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수6:22-25)

여리고 정복 이야기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보고한다. 라합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전개

된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처럼(민13장), 여호수아는 잇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를 엿보게 했고, 그들은 정탐하는 기간 중 낮선 이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기생의 집을 유숙 장소로 택했다(수2:1).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 살려주었고,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수6:25). 라합을 살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땅 자체도 헤렘의 대상이 될 것을 맹세했다(수6:26). 신명기사가는 왕정 시대에 이르러 아합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 재건을 시도하다가 자식들을 잃은 것을 여호수아의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왕상16:34).

### 3. 아이 성에서의 패배(수7:2-5)

첫 번째 아이 성 전투의 패배 이야기는 여리고 이야기와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하셨고’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수6:27). 그러나 아이 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이길 수 있다는 정탐군의 보고만 믿고 전쟁을 가볍게 여겼다(수7:3). 김상래는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통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를 몇 가지로 제시한다.<sup>12)</sup> 첫째, 본문 속에 장군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즉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둘째, 여리고성 전투 때와 2차 아이성 전투 때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12)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야간 때문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규약논단』 46(2012), 72-95.

표현(수3:1; 6:12,14; 8:10)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즉 여호수아의 태만을 말한다든 것, 셋째, 때번의 전쟁 때마다 등장하는 아웨의 보증의 말씀(수2:24; 6:2; 8:1; 10:8; 10:30; 11:6)이 없다는 점,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상의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넷째,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였음’을 말하는 내용(수3:1; 6:16; 8:3,10; 10:7,15,43; 11:7)이 없다는 점, 즉 여호수아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다섯째 아무런 종교적인 요구나 군사전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즉 지휘관이 나 전략도 없이 백성들이 무모하게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 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수7:5).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는 라합의 고백(수2:10)을 떠올리게 한다. 여리고 성이 헤렘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 4. 아간과 그 가족의 죽음(수7:1, 6-26)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실패를 경험한 후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다. 그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수7:6) 차라리 요단 강을 건너오지 않고 저편(=트랜스 요르단)에 머물러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절망에 잠기고야 만다(수7:7).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이 도둑질하고 숨긴 데에 있다고 하셨다.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헤렘의 대상자를 색출했고, 긴 색출 과정을 통해 아간이 범죄자로 지목되었다. 아간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헤렘의 대상이 되어 돌과 불로 죽임을 당했다. 여리고 정복 이야기가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의 구원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이에서의 첫 전투 이야기는 아간과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과 불로 진멸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스라엘 사람 아간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헤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보다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이 아간의 범죄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후 일어난 첫 번째 범죄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범죄행위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하와의 범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see/**히,라이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covet/**히,하마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take/**히,라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창3:6)

〈아간의 범죄〉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see/**라이아**) **탐내어**(covet/**하마드**) **가졌나**이다(take/**라카**)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수7:21)

인류의 첫 범죄와 아간의 범죄는 모두 ‘보고’(라이아)-‘탐내어’(하마드)-‘취했다’(라카)’는 동일한 동사로 연결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범죄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변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진입한 후 일

어난 첫 번째 범죄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헤렘의 대상으로 만든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이다.

### 5. 두 번째 아이 성 전투와 율법 낭독(수8:1-35)

아이 성에서의 두 번째 전투(수8:1-29)는 여리고에서와는 달리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문제가 해결된 후,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하달했다. 아이에서 탈취할 물건과 기축을 ‘스스로 가질 것’을 허락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주력부대와 북병으로 나누어(12-13절) 치밀한 매복 작전을 진행했다. 일차 전투 때와는 달리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버렸고 왕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내렸다.

여호수아 8장 30-35절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하고 여호수아가 에발 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보고한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 재판관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을 각각 그리스 산과 에벨 산 앞에 절반씩 서게 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다. 이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했던 말씀을 따른 것으로 이때부터 그리스 산은 축복의 산으로, 에발 산은 저주의 산으로 이스라엘 전통 속에 자리잡는다.<sup>13)</sup>

13)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이다. 오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칭호가 여호와와 종(에베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종(에베드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쉬 하엘로힘)이었던 것처럼, 신명기사가가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 또한 여호와와 종이다(수1:1,13; 8:31; 11:12,15; 12:6; 13:8; 14:7; 22:2,5; 24:29). 그 호칭에 걸맞게 여호수아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의 축소판으로 나타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보낸 것,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것, 오경과 신명기역사서가 죽음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를 “여호와와 종”으로 묘사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과 모압평지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 III. 윤리적 이슈로 내려티브 읽기

#### 1. 여리고 심판에서 예루살렘을 보다.

구약성서를 윤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우선 고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체험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sup>14)</sup>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정복과 헤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끝난 직후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편집은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이후의 일이다. 신명기역사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포로기(혹은 그 이후)가 신명기역사서의 마지막 편집 시기와 일치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모은다.<sup>15)</sup>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여리고 성의 파괴와 심판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렸을 것이다. 사마리아가 앓시리아에 함락되었던 것이나(기원전 722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대재난(기원전 587년)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일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스라엘의 멸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라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왕하17:18)

---

설명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리심 산과 예발 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선포했던 것 등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닮은 꼴임을 말해준다. 이시야, “모세의 축소판, 여호수아,” 『기독교세계』 942 (2009. 4), 54-57.

14) Christopher J. H.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22.

15) Thomas C.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김경식 역, 『신명기역사서 연구』 (서울: CLC, 2020), 243-244. 크로스의 이중 편집 모델을 따르는 학자들과 피팅겐 학파의 학자들, 그리고 포로기 시대의 단일한 신명기사기에 대한 노트의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유다의 멸망〉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 (왕하23:26)

신명기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무너진 것은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제거하신 일, 곧 심판의 결과라고 말한다. 포로후기의 유다인들에게 한 나라와 민족, 성읍의 멸망은 힘의 유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여리고 성의 종말 역시 자신들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심판의 결과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성 주위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한 일이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수6:20)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기적의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고,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는가? 이에 대한 구약성서서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과 일치한다. 죄의 결과가 그것이다.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15:16)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9:5)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대 후, 아모리 사람의 죄가 가득 찬 때’(창15:16), 즉 가나안 사람들이

지는 죄의 벌을 받을 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로 규정한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의 헤렘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전투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죄는 특히 풍요 제의와 연결되어 있는 성적 방탕과 왜곡 및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비정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땅 자체가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언급한다.<sup>16)</sup> 이 말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는 말일 뿐 아니라 또한 역접고 메스꺼워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소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sup>17)</sup>

<sup>24)</sup>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sup>25)</sup>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레 18:24-25)

<sup>29)</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 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sup>30)</sup>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울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신12:29-31)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헤렘은 가나안의 비윤리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연 그 족속

16) Christopher J. H.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668.

17) 위의 책, 668.

들은 완전히 멸절을 당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우상숭배가 민족의 멸종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악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논의는 비껴갈 수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 2.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라합 이야기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구원받는 소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구약성서의 ‘남은 자’(remnant) 사상을 떠올리게 한다(창7:23; 사10:20; 렘31:7 등). 여호수아 6장 17-25절은 여리고성이 헤렘되었다고 심판도 강조하지만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구원 또한 강조한다. 이 이야기는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했다’는 진술과 함께 ‘라합과 그녀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수6:21)는 명령을 동시에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6장은 진멸 즉 심판보다 라합의 구원을 더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sup>18)</sup> 그녀가 구원받은 배경에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선대한 행위와 아웨에 대한 고백이 있다. 정탐꾼에게 들려주는 라합의 고백은 놀랍다. 그녀는 하나님이 여리고가 속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수2:9).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했던 일도 ‘들었다’. 그녀의 최종 고백은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수2:11). 이는 가나안 땅에서 들려온 첫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으로 믿은 것이다. 이는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그녀는 자기 믿음에 따라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여리고 성이

18)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9-10.

점령되었을 때에는 가족과 함께 생명을 보존받았다. 이와 같은 라합의 고백은 흡사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룻을 떠올리게 한다(룻1:16-17). 라합은 룻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선조 중 하나로 열거되고(마1:5), 실천하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한다(히11:31; 약2:25).

### 3. 개인의 윤리는 공동체의 윤리이다.

여호수아 7장은, 6장에 나타난 이방인 기생 라합과 대조하여, 이스라엘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길게 보고한다. 여호수아 5-11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정복 기사는 라합과 그녀에 속한 모든 자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헤렘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헤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다.<sup>19)</sup>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방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으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스라엘 사람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지붕에 숨겼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을 장막 아래 땅 속에 숨겼다.<sup>20)</sup> 그 결과 라합은 헤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아간은 헤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조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스라엘 또한 언제라도 심판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전리품을 훔친 행위를 아간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준엄하게 여기셨다는 것이다.

19) 위의 글, 1-25.

20) J. Scott Duvall & Daniel Hays,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in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2001), 291-298.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14에서 중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수7:11).

구약성서에서 아간은 이곳 말고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본문에서 아간은 한 개인의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 본문은 아간을 전체 이스라엘과 하나로 묶고 있다. 아간은 제비뽑기를 통해 대표가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간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간을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으셨고, 본문은 아간 개인의 윤리와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것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의 저자(혹은 편집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포로후기의 공동체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있고 바른 삶이 공동체 전체의 존폐를 가늠하게 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4. 혐오와 배척을 넘어 포용으로

구약성서 안에 나타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 민족과의 불가피한 적대적 감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규정 역시 이방민족에 대한 특별한 적대감을 보여준다(삼상15:3).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적대시한(출 17장) 아말렉의 존재 목적은 마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유일한 것처럼 나타난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되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일부와 왕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될 정도이다(삼상15:23).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을 진멸하려 했던 하만은 유대인에 대한 진멸, 즉 역(逆)-헤렘의 시도하기도 했다(에3:13).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상황은 오늘날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윤리적 이슈들을 제기하게끔 한다. 왕정시대의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허무하게 중단된 반면, 포로후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구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종교개혁이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배타주의적 개혁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의 죄를 고발했고(스10:10-12), 태어난 자녀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릴 정도로 적대시했고(느13:25), 비슷한 이유로 종교지도자를 내어쫓기도 했다(느13:28, 레21:14 참조).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린 느헤미야의 조치는 일종의 이동학대로 비쳐진다. 이와 같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조치가 포로후기 공동체의 특별한 상황, 즉 무너진 성벽의 재건, 새로운 유대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 질서의 확립, 유대교의 대동 속에서 순수한 야웨 신앙의 회복 등 그 시대의 특정 상황 속에 필요한 사항들이었다 해도 지나친 혐오와 배척은 구약을 윤리적으로 읽어가는 것을 매우 힘들게 한다. 그러나 특정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 구약 전체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아니며, 하나님의 모든 모습도 아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는 혈연공동체가 아닌 신앙공동체 중심의 역사를 보여준다. 구약성서는 본질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전제하고 있고, 혈연공동체가 아닌 신앙공동체로 출발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이방인과의 간격은 좁혀지고 있다. 요셉은 애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므낫세

와 에브라임을 낳았고(창41:45,50; 46:20), 이 두 아들은 요셉을 대신해서 열두 지파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다문화공동체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후에 출애굽 공동체 역시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잡족’(에레브 랍)이 함께하는 신앙공동체였다(출12:38).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일하던 노예들로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는 이 공동체가 여러 민족들로 섞인 다문화적 공동체였음을 알려주는 말이다. 출애굽 공동체는 처음부터 다문화적 공동체로 시작되었으며, 그 안에 섞인 여러 민족들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같이 동화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수많은 잡족도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sup>21)</sup>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닌 ‘그니스 사람’ 곧 다른 민족 출신이었다(창15:19; 36:11). 그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 할 때에 섞여 있었던 잡족 중 한 명이었을 것이고, 출애굽 여정 중에 유다 지파에 소속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웃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그니스)의 아들로 그 역시 이방인 출신이었다(삿3:9).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새로운 역사는 다시 근원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 구원과 심판의 범주가 차별없이 적용되는 역사의 시작을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첫 사건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심판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라합과 아간 이야기는 전통적인 배타주의적 사상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현장에서 피어난 포로후기의 보편주의 사상을 사상을 반영한

21) 김덕중·안근조·이사야 엮음,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서울: kmc, 2014), 65

다고 할 것이다. 여호수아 헤렘 기사를 마무리하는 율법선포 장면이 본토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암시한다고 볼 것이다.

은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벤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와 중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수8:33)

### 5.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헤렘에 관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할 것을 정말로 명하셨는가 하는 점이다. 방기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차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민족을 학살하거나 내쫓으라는 의도나 명령은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음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명령(수1:10-15절)은 실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수1:2-9)이 각색된 것이다.<sup>22)</sup>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는 단 한 번도 여리고 백성 진멸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여리고 점령과 관련한 야훼의 군대장관의 전쟁지침에는 헤렘에 관한 어떤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sup>23)</sup> 만약 방기민의 주장대로 여호수아서의 헤렘이 각색된 것이라면, 여호수아서의 헤렘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명하지도 않은 일을 저지른 경우가 될 것이다.

헤렘의 의미는 단순히 진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과 심판의 의미로 읽힐 때에는 진멸에 머무르지만, 구약성서가 말하는 헤렘의 일차

22)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79(2021), 69-71.

23) 윗글, 74.

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sup>24)</sup> 여리고에서의 헤렘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지는 전리품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포기되어야 할 전리품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의 일부가 되는 용어이다. 특히 성읍 전체와 그 거민들을 불이나 칼을 사용하여 여호와께 바치는 것은 비록 헤렘의 봉헌이 여호와를 향한 속죄의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희생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sup>25)</sup> 나이다치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헤렘의 이런 모습은 여호와께 드려진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들이고 중죄인들이지만, 그들의 생명은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돌려져야 한다.<sup>26)</sup>

이렇게 헤렘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의미로 읽게 될 때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이 질문이 두드러지게 제기되는 사건은 아브라함(창22장)과 입다(삿11장)의 경우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것이나, 입다가 딸을 바친 것에 어떤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24) 헤렘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는 M. Greenberg, "Herem," Fred Skolin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edia Judaica*, 22 vols. 2<sup>nd</sup>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9:10-13; N. Lofink, G. J. Botterweck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J. T. Wills et. al. (trans.), 16 vo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2018), 5:180-199; Phillip D. Stern, *The Biblical Herem: A Window o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Atlanta: Scholars Press, 1991); Christian Hofreiter, *Making Sense of Old Testament Genocide: Christian Interpretations of Herem Passages* (OTR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참조.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31, 각주 1.

25) S.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A Study in the Ethics of Viol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8-55; J. S. Kaminsky,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8-81; Philip Satterthwate, Gordon McConville, *Exploring the Old Testament: The Histories*, 김덕중 역, 『역사서』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96에서 중인.

26) Philip Satterthwate, Gordon McConville, 위의 책, 96.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살인을 명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 심판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소름끼치는 관습을 따르게 하는 기괴한 시험(a monstrous test)<sup>27)</sup>으로 비치게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행했다라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죄에 해당 할’<sup>28)</sup>만한 일이다. 하지만 구약은 이 일이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창22:1). 입다의 경우는 민수기 21장 1-3절의 서원 헤렘과 연관된다. 출애굽 여정 중 이스라엘은 네겍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의 습격을 받았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 하면 성읍을 진멸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민21:2).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진멸한 성읍을 호르마(‘완전히 멸함’)라고 이름붙였다. 이와 같은 서원 헤렘에는 ‘전쟁의 승리를 해주시면’이라는 전제가 따른다.<sup>29)</sup> 버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서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반전의 기회를 삼고자한 데 있다고 보았다.<sup>30)</sup> 입다 역시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개입시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암몬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다.<sup>31)</sup> 입다를 영접한 사람이 그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해도 그 역시 하나님께 번제물

27) 이 용어에 대해서는 James Gresham, *A Whirlpool of Torment* (Minneapolis; Fortress, 1984), 1장. Paul Copan, *Is God a Moral Monster?*, 81을 참조.

28) S. Kierkegaard, “*Fear and Trembling*” and “*The Sickness unto Death*”, trans. Walter Lowrie (Garden City, NY: Doubleday, 1954), 41.

29) 김남일, “헤렘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4(2007), 160.

30) Philip J. Budd, *Numbers*, WBC, vol. 5 (Waco: Word Book Publisher, 1983), 230-231. 김남일, 위의 글, 160에서 중언.

31) M. J.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Theme in the Book of Judges* (US: UMI, 2004), 178-179.

로 바쳐서는 안될 일이다. 구약은 몰렉 제의와 같은 인신제사를 우상숭배로 엄격히 금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2)</sup> 앞서 언급했듯이(III-1), 인신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 될 뿐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구약의 모든 규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배척, 진멸을 담고 있는 헤렘도 그중 하나이다. 여리고 전투의 헤렘이 헤렘 일반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헤렘이 여리고 전투 기사의 전부도 아니다.<sup>33)</sup> 또 여리고 전투의 헤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IV. 나오는 말

구약성서에서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는 많은 본문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구약성서를 비윤리적인 책으로 분류하게 했고, 지금까지 구약성서의 윤리 연구가 미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구약성서는 정말로 윤리적으로 탐구하기에 어려운 책이며,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신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 이스라엘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과 윤리적 삶을 분명히 혹은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윤리적인 사고와 행위들이 고대 이스라엘을 규정하고 있는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은 어떤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을 뿐이다.

32) 이사야, 『새롭게 읽는 십계명』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23), 76-77.

33)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46.

여호수아서의 헤렘 본문은 포로기를 경험한 유다 공동체에 의해 최종 편집된 이야기이다. 유다 공동체는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헤렘에서 예루살렘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았다. 여리고 성의 헤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보고 들었을 것이다. 여리고 정복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들의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인해 일어난 죄값이었음을 여리고의 헤렘을 통해 들여다 보았다. 이 헤렘 본문은 여리고 성 주민에 대한 헤렘만 담고 있지 않다. 라합 이야기를 통해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편주의 사상과 아간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동시에 전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의 윤리를 공동체의 윤리와 하나로 묶어 포로후기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윤리를 모색했을 것이다. 성서의 일부 구절들이 성경 전체의 사상을 대변할 수 없듯이 여호수아서의 헤렘이 구약의 헤렘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며, 구약의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헤렘을 통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며 구약은 몰렉제의와 같은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신 제사는 오히려 헤렘의 대상이 될 뿐이다.

구약성서의 윤리적 연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보석과도 같은 분야이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는 일부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윤리적 사상의 보고로서 구약성서를 읽어가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규성. “헤렘 전쟁 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9(2019), 1-25.
- 김남일. “헤렘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4(2007), 153-181.
- 김덕중 · 안근조 · 이사야 엮음.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서울: kmc, 2014.
-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81(2021), 131-154.
-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야간 때문만인가?-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46(2012), 72-95.
-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79(2021), 61-96.
- 이사야. “모세의 축소판, 여호수아.” 『기독교세계』 942(2009. 4), 54-57.
- 이사야. 『새롭게 읽는 십계명』. 서울: 신앙과지성사, 2023.
- Botterweck, L. G. J.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J. T. Wills et. al. (trans.). 16 vo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2018, 5:180-199.
- Budd, Philip J.. *Numbers*. WBC, vol. 5 Waco: Word Book Publisher, 1983.
- Copan, Paul. *Is God a Moral Monster?*. 이신열 역. 『구약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Crenshaw, James. *A Whirlpool of Torment*. Minneapolis; Fortress, 1984.
- Dawkins, Richard. *The God Delusion*. Boston: HoughtonMifflin, 2006.
- Dever, William G..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2017.
- Duvall, J. Scott & Daniel Hays.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in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2001, 291-298.
- Greenberg, M.. “Herem.” Fred Skolin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edia Judaica*. 22 vols. 2<sup>nd</sup>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9:10-13.

Hofreiter, Christian. *Making Sense of Old Testament Genocide: Christian Interpretations of Herem Passages*. OTR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Jividen, David D.. "Is Yahweh a bloodthirsty, genocidal maniac?, If God is love, Why does he command the annihilation of entire people?." *New Oxford Review*. 2018, June.

Kaiser, W. C.. *What does the Lord Require?: A Guide for Preaching Biblical Ethics*. Grand Rapids: Baker, 2009.

Kaminsky, J. S..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Kenyon, Kathleen, M.. *Excavations at Jericho*. vol. 5 London: E. Benn, 1979.

Kierkegaard, S.. "Fear and Trembling" and "The Sickness unto Death." Lowriet, Walter, trans. Garden City, NY: Doubleday, 1954.

Niditch, S.. *War in the Hebrew Bible, A Study in the Ethics of Viol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Rogerson, John. W. & Carroll, M. D.. *Theory and Practice in Old Testament Ethics: The Contribution of John Rogerson*. JSOTSup. 405 London: T&T Clark, 2004.

Rogerson, John W. & Carroll, M. Daniel. *The Bible in Ethics*. JSOTSup. 207 London: T&T Clark, 1995.

Römer, Thoma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김경식 역. 『신명기역사서 연구』. 서울: CLC, 2020.

Satterthwaite, Philip & McConville, Gordon. *Exploring the Old Testament: The Histories*. 김덕중 역. 『역사서』.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Shermer, Michael. *The Science of God and Evil*. New York: Henry Holt, 2004.

Smith, M. J.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Theme in the Book of Judges*. US: UMI, 2004.

Stern, Phillip D.. *The Biblical Herem: A Window o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Atlanta: Scholars Press, 1991.

Wright, Christopher J. 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윤리적 책으로 구약 읽기를 위한 한 모색 | 이사야 263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www.kci.go.kr](http://www.kci.go.kr)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헤렘을 중심으로 구약성서의 윤리적 읽기를 시도한다. 구약성서 안에는 현대인의 인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산재한다. 그중 헤렘은 적들의 도시를 파괴시키고 그 거민까지 진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남녀노소를 막론한 주민들과 모든 생명을 멸절하는 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멸절하고 성읍을 진멸했다는 선언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외에 윤리적 관점으로 읽을 것을 요구한다. 본문은 이방인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사람 아간을 대조하여 이방인도 헤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도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아간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윤리는 공동체의 윤리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은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으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제어: 윤리, 구약성서, 헤렘, 여리고, 아이, 이방인, 인신제사

---